

기획시리즈-성인 열전 9

주님의 위대한 스토리텔러 **성 루카**



**성인명** 루카 (Luke)  
**축일** 10월 18일  
**성인구분** 성인  
**신분** 복음사가, 증거자  
**활동지역**  
**활동연도** +1세기  
**같은이름** 누가, 루가, 루까, 루카스, 루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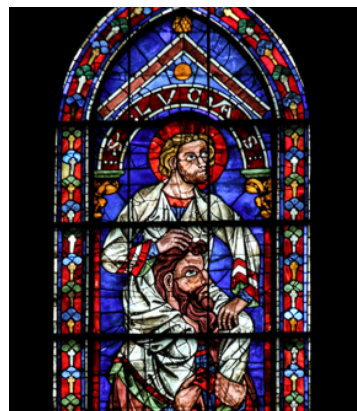
전통적으로 성 루카(Lucas, 또는 루가)는 교회사학자 에우세비우스(Eusebius) · 히에로니무스(Hieronymus, 9월 30일) · 리옹의 성 이레네우스(Irenaeus, 6월 28일) 등에 따르면, 안티오키아(Antiochia) 출신의 그리스인 의사로 사도 성 바오로(Paulus, 6월 29일)의 ‘협력자’(필레 1,24)이자 루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저자라고 알려졌다. 실제로 성 바오로는 서간에서 그를 ‘사랑하는 의사 루카’라고 지칭했다(콜로 4,14). 성 스테파누스(Stephanus, 12월 26일) 부제의 순교와 박해로 많은 이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했는데, 안티오키아도 그런 도시 중의 하나였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을 돌보기 위해 성 바르나바(Barnabas, 6월 11일)를 파견했고, 성 바르나바는 타르수스에 있던 성 바오로를 데려와 함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성 루카는 아마도 이때 사도들과 알게 되고 특별히 성 바오로를 깊이 존경하고 따랐던 것 같다. 그는 51년경에 있었던 사도 바오로의 제2차 선교 여행을 수행하며 힘껏 도왔고, 57년까지 필리피(Philippi)에 머물면서 그곳의 공동체를 지도한 후 성 바오로의 제3차 선교 여행 때도 만난 듯하다. 그는 성 바오로가 카이사리아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로마로 호송되어 감옥에 갇히고 재차 갇혔을 때도 늘 곁에 있었다(콜로 4,14; 필레 1,24; 2 티모 4,11). 그는 사도 성 바오로의 순교 이후 그리스로 건너간 듯 보인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복음서를 집필하기 위해 성모 마리아(Maria)를 찾아뵙고 주님의 탄생 전후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한다. 반대로 성모 마리아를 직접 뵈지 못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의 초상화를 여러 개 만들어 섬겼다고도 한다. 전통적으로 가장 오래된 성모 마리아 초상화로 알려진 이콘의 작가가 성 루카라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그는 ‘붓’보다는 ‘펜’으로써 다른 복음서들이 전해주지 않은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기 이야기 속에서 마리아의 모습을 마치 그림처럼 묘사해 주었다(루카 1-2장). 성 루카가 언제 어디서 복음서를 집필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확실한 것은 팔레스티나 밖에서 80년 전후에 쓰였다고 한다. 그리고 루카 복음을 시작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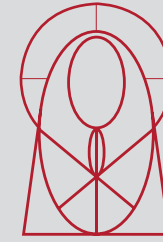
머리말(1,1-4)에 따르면, 그는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며,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Theo-philos)을 뜻하는 ‘테오필로스’라는 인물을 통해 이미 그리스도교의 기본 진리를 전해 들은 이들이나 입문자가 더욱 확고한 신앙을 갖게 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대체로 성서학자들은 복음사가 성 루카가 염두에 둔 독자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공동체로 보고 있다.



루카 복음서와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63년경 사도 성 바오로가 로마에서 수인으로 생활하며 선교 활동에 매진할 때까지 초대교회 성장기를 서술하고 있다. 전반부는 사도 성 베드로(Petrus, 6월 29일)에게 그리고 후반부는 사도 성 바오로에게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성 루카 자신에 관한 구절은 하나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겸손함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성 바오로의 순교 이후 박해를 피해 로마를 떠나 아카이아(Achaia) 지방과 소아시아 지방에서 선교하며 온갖 고난을 참아내며 주님을 섬기다가 84세를 일기로 선종한 듯하지만 순교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의 유해는 콘스탄티노플의 열두 사도 성당에 안치되어 있다. 복음서에서 하느님의 자비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 특별히 강조했던 성 루카는 의사와 화가의 수호성인으로 공경을 받고 있다. 교회 미술에서 성 루카는 성경(예제 1,10; 묵시 4,7)에 언급된 ‘살아있는 네 생물’에서 유래한 상징에 의하면 황소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는 성 루카 복음사가의 침착하고 강인한 성격과 주님과 사도 성 바오로를 위한 희생과 충직함을 상징한다.♣



**연중**  
**제 29주일**  
**2023년**  
**10월 22일**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9AM~2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그리스도의 부활〉 시몬 체허비즈, 1758, 폴란드 크라코비아 시립 미술관

〈 이번 주 전례안내 〉

# 제 1독서 이사야서 2,1-5  
 # 화답송 시편 23(22),1-3 7.3.4.5.6(© 6.7.8)

후렴: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0,9-18  
 # 복음 환호송 마태 28,19.20 참조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마태오 28,16-20  
 # 성가번호 입당 63 봉헌 213, 216 성체 498, 158 파견 450

🌸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

🌸 미사지향 (연미사)

- 선점환(마리아) - 가족
- 이금주(베드로) - 가족
- 이석중(스테파노) - 가족
- 추성태(바오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임계순(데레사) - 가족
- 최준혁(베드로) - 가족

🌸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성낙철(안드레아), 성경숙(아가다) 가정 - 이막동(아네스)
- 박락준(베드로) - 가족
- 이 마이클 - 가족
- 성가대원 분들과 그 가정 - 안현정(소화데레사)
- 한지혜(크리스티나) - 유미선(클라라)
- 함형우(요셉) - 유미선(클라라)
- 오현주(요한) - 한상철(빈첸시오)
- 한주희(토마스) - 한상철(빈첸시오) 가족
- 길 토비아 - 유용희(율리안나)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109명).....	\$1,181
• 교무금.....	\$1,800
최영옥(9-10)      유병기(10-12)      변태용(10-12)	
오현주(9-10)      허중(10)	
• 감사헌금 .....	\$1,300
익명(\$400)      익명(\$500)      익명(\$400)	

🌸 Rosary Altar Society 주관

Gertrude Hawk 크리스마스 캔디 세일

- 성당 입구에 비치된 주문서를 사무장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 주문 마감: 10월 29일(주일)까지

🌸 Holy Name Society 주관 가을 50/50 Raffle 행사

- 본당 발전 기금 마련을 위한 50/50 Raffle 행사 안내문과 티켓을 각 가정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메일로 티켓을 받지 못하였거나 추가로 티켓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 추첨 일시 및 장소 : 11월 18일(토) 오후 4시 미사 후 친교실

🌸 시설 관리 유지 현황

- 성당 사유지 (쓰레기 집하장 뒷쪽) 내 죽은 나무 및 덩굴 제거 작업

🌸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곽 율리안나	방진숙(데레사)
정수지(아네스)	송희수(글라라)

🌸 2차 헌금

- 10월 22일: World Mission Sunday (교황님 선교 사업 지원)
- 2023 세계 선교의 날 교황님 메시지는 “불타는 마음, 움직이는 발 (Hearts on fire, feet on the move)” 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주님의 평화와 구원의 길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하자고 교황님께서는 권고하십니다.

🌸 모든 성인 대축일 미사

- 일시 및 장소: 11월 1일(수) 오전 9시 영어 미사 (경당)

🌸 위령의 날 미사

- 일시: 11월 2일(목) 첫째 미사 오전 9시 영어미사, 경당  
둘째 미사 오전 10시 30분 한국어 미사, 경당  
셋째 미사 오전 11시 10분 한국어 미사, 경당
- 죽은 모든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위령의 날을 맞이하여,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 친지, 지인들을 위하여 연미사를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 미사 봉헌을 원하시는 분들은 봉투에 지향자 및 봉헌자 성함을 기입하시어 사무장에게 주시면 됩니다.

🌸 친교 봉사 일정

- 11/19썸머셋      • 12/17 에디슨      • 1/21 올드브릿지

🌸 10월 목주 기도 성월을 맞아 다음 지향으로 미사 30분 전 목주 기도를 바칩니다.

- 10월 22일: 모든 아픈 이들을 위하여
- 10월 29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 10월 사우스브런스윅 구역 빵과 포도주 봉헌자

- 10/22 박미경, 김태경      • 10/29 정진오 유미선

🌸 성당 교우 주소록 갱신

- 각 구역장님들을 통해 주소록 갱신을 위한 양식을 배부합니다. 작성완료하신 후 각 구역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역장 회의

- 일시 및 장소 : 10월 29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먼로 구역 모임 (구역장: 민규란 엘리자벳)

- 일시 및 장소 : 10월 29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이스트브런스윅 구역 모임 (구역장: 오은주 로사)

- 일시 및 장소 : 10월 29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 썸머셋 구역 모임(구역장: 백용숙 카타리나)

- 일시 및 장소 : 10월 29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사우스브런스윅 구역 모임(구역장: 김현걸 토마스아퀴나스)

- 일시 및 장소 : 10월 29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3개 본당(에디슨,이튼타운,프린스톤) 합동 레지오 단원 영성 일일 피정

- 지도 : 장재명 파트리치오, 레지오 교육협의회 지도신부님
- 일시와 장소: 11월19일(일) 오후 3시~5시 30분 OLM 성당 친교실
- 대상: 레지오 전 단원(행동/협조)

🌸 2023 성탄 맞이 성가/크리스마스 캐롤/ 생활성가 경연대회

- 일시 및 장소 : 12월 25일(월) 성탄 미사 후 친교실
- 구역별 2인이상 참가(독창 불가)
- 성가/크리스마스 캐롤/생활성가/신앙 관련 건전 가요에 한하여 구역별로 1곡 경연
- 시상: 1/2/3등 및 특별상

🌸 제1독서: 이사야서2,1-5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0,9-18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나!”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을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마태오28,16-20

그때에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SCAN ME: 가스펠톤

🌸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2023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이 지난 성체 성혈 대축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목표는 성체성사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관계를 일깨움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3년 동안의 계획으로,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교육하며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 중에서도 실제로 그리스도의 성체성사에 대한 진리적 존재를 믿는 사람은 31%에 불과합니다.

이 3년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믿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리 믿음의 근원이자 정점인 주님께서서 현존하시는 성체성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는 교구 부흥의 해, 2024년 National Eucharistic Congress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7월 17일-20일)와 국가 선교의 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 Our Lady of Mercy성당에서는 매 주 미사 중 공지사항 시간에 교육적인 "신앙양식" 시리즈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주보에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학생들이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의 존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외에도 강연 시리즈와 모든 교구 신자들을 위한 Night of Mercy행사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성체 기도문 🌸

오 성스러운 만찬

오 거룩한 성체여,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계시는 곳,  
그리스도 수난의 기억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우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저희가 얻게 하소서.

O Sacrum Convivium

O sacred banquet,  
in which Christ is received,  
the memory of his Passion is renewed,  
the mind is filled with grace,  
and a pledge of future glory is given to us.